

연중 제27주일
군인주일

기도서 451면

제1독서: 창세 2, 18-24

제2독서: 히브 2, 9-11

복음: 마르10, 2-16(2-12)

순정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사: 목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교구청

☎ ③ 5098 ④ 3201

강론



나라와 군인

정승현 신부

오늘은 우리 나라가 시작된지 4315년이 되는 나라의 큰 명절, 개천절이요, 15번째로 맞이하는 군인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이 나라를 피땀으로 가꾸어온 선조들의 은덕을 기리는 바입니다.

누가 무어라 하든, 그 어떤 새로운 학설이 등장하든, 나라를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역사, 우리의 전통 등은 참으로 고귀한 것이 아닐 수 없으며 민족적인 생명을 다 바쳐 지켜나가야 할 가치가 아닐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이 큰 일을 맡고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 우리 군인들을 아끼고 올바르게 보살피는 일은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며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군인주일은 하루를 다소 뜻깊게 보내는 하나의 행사가 되어서도 안되고 더더군다나 군인들을 위해 약간의 현금이나 바치면 다라고 생각해서도 안되는 날입니다.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러모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군인들은 이 나라의 내일을 떠맡아 나아갈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에게서 우리는 이 나라의 내일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무장될 때 이 나라는 분명 의롭고 사랑에 찬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장년이나 노년들에게 전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더라도 지치지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무기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무기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없는 불행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개인적인 불행은 무장탈영병의 난동극을 상상하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며, 집단적인 불행은 전쟁—특히 일본 제국주의나 독일의 나찌즘이 자행했던 전쟁을 상상하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오늘의 한국 현실에서 군인이 군인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그 본연의 자리에서 이탈할 때 빚어질 어려움은 여기에서 절제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군사목 현장에 주님의 도움의 은총이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삼가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이들을 주여 당신 사랑 안에 보존하소서. 아멘 (군중 신부)



군인은 누구의 아들인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이 꽤 어렵다고 말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그 대상자에게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 한 바가지를 떠주는 일, 길을 묻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안내하는 일, 그 어느 하나도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을 배우고 몸에 익혀야 한다.

사랑은 결코 어려운 일만도 아니다. 커다란 일만이 사랑이 아니고, 조그마한 일도 훌륭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굳이 목숨을 바쳐야만 사랑하는 일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내 버스를 탈 때 미리 잔돈을 준비했다가 요금을 내는 일도 사랑을 베푸는 일이다. 승객은 왕이니 먼저 자리에 앉고, 나중에 안내양이 비틀거리며 찾아와 요금을 받아가게 하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손님의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할런지 모르나, 하루종일 시달리는 안내양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잔돈을 미리 준비해서, 버스에 오르며 요금을 주는 조그마한 정성이 참으로 훌륭한 사랑이다. 목숨을 바치는 일에 비해 얼마나 쉬운 일인가. 이렇듯 조그마한 사랑을 시작해 보자.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오늘은 제15회 군인주일이다. 전선을 지키는 그들은 바로 우리의 자식이요, 형제들이다.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들에게 관심을 갖자. 그것이 사랑이다. 주보 한 장 보내주는 일, 매달 단돈 천원의 군중회비로 군중사제를 돕는 일,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먼데서 사랑을 찾지 말고, 오늘은 모두 군중후원회에 가입하자. 군중후원회에 가입하는 일은 사랑을 하는 일이요, 군중사목의 일부를 돕는 참으로 좋은 일이다.

순정이 산책



우리는 군인주일
힘껏 도움시다!

1982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문

쌀은 국민의 주식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농가 소득원이다. 따라서 쌀값은 국민의 안정된 식량 확보와 농가 경제 향상을 고려한 바탕 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본회에서는 안정된 국민식량의 확보와 농가경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쌀값은 최소한 쌀생산을 위해 들인 비용인 생산비만은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지난 75년부터 쌀생산비 조사와 생산비 보장운동을 조사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쌀값정책은 쌀생산비 보장마저 의면한 채, 무분별한 외국 농산물 도입을 바탕으로 한 저농산물 가격 정책으로 일관하여, 농민의 생산의욕을 꺾고 농가경제를 엄청난 빚더미 속에 빠뜨려 농업의 위기를 불러 일으켰으며, 국내 식량 자급도는 절반이하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저질미를 국제시세보다 비싼값으로, 국내 소요량보다 엄청난게 많이 도입하여 국내 쌀값을 폭락시킨 외국 쌀은, 이제 쌀생산 농가에까지 교환 양곡으로 지급되어 지금도 산지 쌀값을 계속 폭락시키고 있다.

이같은 어려움 가운데 생산자 농민은 피땀어린 노력을 쏟았고 이제 추수를 시작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벼농사는 유래없는 격심한 가뭄과 두차메의 태풍 등 엄청난 자연의 시련 속에서 농민들의 피땀어린 노고로써 어느해보다도 힘겹게 거둔 수확이다. 참으로 한톨의 쌀도 농민의 피땀어린 결실이다. 정부는 이 노고에 대해 최소한의 실질 생산비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만 보더라도, 3년간 계속된 흉작과 엄청난 물가고 속에서 적자영농에 고통받던 농민들에게 국내 경제 안정을 위해 희생을 분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결정된 수매가 14%의 인상은, 전년도에 비해 실질 수매가격을 16.3% 이상 감소시켜 빚더미 속에 허덕이는 농가경제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 그러나 고통의 공동분담이란 이름으로 취해진 이러한 조치는 또다시 공공요금 인상, 독과점 품목의 인상, 소위 장영자 어음사건, 기업에 베푼어진 엄청난 특혜 등으로 결국 농민에게만 그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말았다.

이제 더 이상 비농업 분야에서 발생한 이러한 경제적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시키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파탄에 이른 농가경제의 회복과 농업문제의 해결은 국민경제와 국가 안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당당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회는 위기에 처한 농업과 파탄에 이른 농가경제를 회복하고 생산비 보장을 통한 농촌 구매력 진작으로 국내경기 활성화를 도모하여 진진한 국민경제 자립과 식량자급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농업 희생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주님 비을 용기를...



주님의 뜻을 실천해 보려는 소망으로 씨앗을 뿌리고 가꾸며,

수확을 하여 과자 달라 조르는 갓난아이의 울음을 달래 주고, 텔레비 언제 사느냐고 다길 받는 철부지에게 약속을 해주고, 결혼 반지 팔아 농협 빚 갚은 아내의 조그만 소망을 들어 주고, 허약하신 노부모님께 보약 한제 지어 드리고, 굶주리고 고통 받는 이웃과 손 한 번이라도 잡아 보며,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한 농부는, 제대로 먹지 않고 휴식도 모른 채 병충해와 가뭄, 수해와 그리고 질병과 싸우고 보니, 부족한 일손에 쫓기면서 가가스로 수확한 피땀의 결실에 가격 폭락과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추곡수매 가격 발표는, 너무도 큰 충격이 옵니다.

그토록 참고 일해온 이 농부는,

다시 철없는 재롱둥이에게 거짓말쟁이가 되어야 하고, 철부지 큰 아이에게는 무서운 아버지로 변해야 했고, 순진한 아내에게는 무능자란 불만에 대담할 길 없고, 한해 한해 기다려온 부모님께서는 불효의 낙인을 씻을 길 없고, 이웃의 고충을 나누려는 뜻은 번질자란 혼장을 받아야 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농부는 기회주의와 겁쟁이로 변하여

거룩하신 주님을 비을 용기가 없아오니,

부디 은총을 내려주셔서,

다시는 이같은 농부의 기도가 두 번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1. 82년도 정부 추곡수매 가격은 쌀 80kg 한가마당 77,000원 이상으로 결정하고 농민이 원하는 건량을 수매할것. (82년도 본회가 추정 집계한 생산비는 76,997원 임)

1. 외국 농산물 도입을 즉각 중단할것.

1. 비료, 농약, 농기구 등 농업생산 자재값을 인하할 것.

1. 한해, 수해 등 재해 농가에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할 것.

1. 불공평한 농지세를 형평의 원칙에 맞게 개정하고 농지개량 조합을 민주화하고 조합비를 낮출것.

1. 농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국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

1982년 9월 17일

한국 가톨릭 농민회

□ 가을 관광 안내 상담

전 일 관광

전화 ⑥ 6666~8

제주도·설악산·한려수도

금·은·보석·시계

결혼예물을 하시는 교우에게는 혼배반지를 기념으로 기증함

보석장

군산경찰서 전복은행 앞

전화 ⑥ 6603

한철재(비오)



의료효과의 선구자! 神秘食品, 土龍

(※ 수도권 등록상표를 확인하세요)

W. B. S <肝(간)·胃(위), 癌(암)에 특효>

성모土龍센타

(聖 베네딕도 수도권 제조)

• 이리 병보여관앞 ⑧253 • 군산 팔마분수대앞 ②4340

• 전주 호남약국 2층 ⑥3257 • 정읍 전화국 앞 9524

• 본점 전주 성모병원 3층 309호 전화 ⑧091 김미카엘



□ 교구 사제 인사 이동

지난 9월 24일자로 교구 신부님들의 인사발령이 아래와 같이 있었다. 가시고 오시는 모든 신부님들을 위해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린다. 주님의 사도들은 언제나 길 떠날 차비가 되어 있는 순례자임을 이 낙엽지는 가을에 다시 증거하시게 되었다.

성명	가시는 곳	계시던 곳	성명	가시는 곳	계시던 곳
이상호 신부	삼 레 주임	상 관 주임	박종근	정 읍	군중 제대
김종택	대 야 주임	복 자 주임	박종상	화 산	성심 여중·고 종교감
이대권	황 등	순정이			
권영균	복 자	화 산	박종신	교육국장(신) 결 섀타관장	군중 제대
안복진	합 열	둔울동			
김환철	둔울동	발령대기 (사무처장)	강인찬	관리국장	정 읍 주임
			강덕창	진 안 주임	황 등 주임
서석기	부 안	덕 진 주임	김운섭	원 평 주임	진 안
김정원	상 관	노송동	한기호	중앙 수석보좌 대 야	
김봉희	덕 진	사무국장	성태수	홍보국장(신설)	사무국 차장
유장훈	사무국장	가톨릭센터 관장	김태운	200주년사무회의 사무국장(서울)	원 평 주임
김용배	노송동	주임	관리국장		
김종길	순정이	부 안 주임	김순태	성심여중·고 종교감	고 창 주임
서석구	고 창	합 열			

□ 부안, 수류, 순정이 본당의 순교자 현양대회

부안 성당은 26일 순교자 축일을 맞아 공소를 포함한 모든 신자들이 본당에 함께 모여 순교자의 정신을 기리며 현양대회를 가졌다. 10시에 현양 미사, 1시에 각 공소 구역 별 성가 및 성경, 천주교회사 발표 회의를 가져 짝짱하고 알찬 대회가 되었다.

수류 성당은 9시 유해 행렬에 이어 10시에 미사를 거행하였다. 순정이 성당은 본당 이름과 같은 해성학교 순정이 치명타에 전신자가 함께 모여 10시에 복자를 현양하는 미사를 봉헌하였다.

□ 제2회 4지구 주일학교 성가 합창 경연대회

4지구 주일학교는 26일 성심학교 강당에서 아동 천여명과 학부형 백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교님을 모시고 성가 경연 대회를 가졌다. 합창부원 어린이들의 노력과 지도교사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본 대회는 주교님의 미사 집전에 이어 합창 발표가 있었고 특별 출현으로 전동 본당 이 주영, 임 지현 어린이가 꼭두각시 춤을 추었다. 전동(최우수상), 중앙(우수상), 덕진(장려상) 순위로 기타 5개 본당도 섭섭하지 않게 상을 고루 받았다. 행사에 도움을 주신 신부님, 수녀님, 학부형님들, 대회를 준비해 주신 김 병환 신부님, 교리교사들과 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김제 용지 공소 성당 전립

지난 9월 19일 김제 본당 소속 용지 공소는 주교님과 내외 귀빈을 모신 가운데 오랜 숙원이었던 성당을 축성했다. 대지 504평에 건평 41평의 3층 적벽돌 건물로 지은 이 성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공소 신자들의 굳건한 신앙심과 주님의 도우심, 그리고 김제 본당 신자들의 뜨거운 성원의 결실이다. 성당 전립에 온 힘을 합하신 공소 신자 여러분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요심이 (478) 김병오



제 9차 정기총회 해성중·고등학교

일시: 10월 9일 오전 10시
장소: 모교 대강당
회비: 3천원
안건: 임원 선출 및
회원명부 작성

모교의 발전을 직접 보시
지 않겠습니까?
동문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동창회장 김 옥 기

□ 각종 신발 도산매

새마을 신집

숙녀화 · 아동화 · 특수화

남부시장 제일새마을금고 앞

김 문식(베드로)

독일제 치질약
에이널 좌약 입하

사마귀 제거약

베루말 재입하

시 민 약 국

4-0009 · 4-3338

약사 김 병 의(마벨로)

홍삼, 수삼, 미삼
로얄제리, 화분가루
(일절구비, 도산매)

임마콜라따

인삼양봉원

☎ 9590 번

백 영 순(글라라)

서학동 교대 부속영 100m

정든 웨딩 드레스

*완전마춤 반쯤 빌려줌
*신자는 미사포 드림
*신부 야외 촬영

전주교대 부속국교 옆집

유 가타리나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이며 전교의 달입니다.

1. 군중 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4일 <월> 오후 7시 30분, 가톨릭센터 3층
2. 제 6 지구 순교자 현양대회 및 체육대회: 일시-9일, 장소-부주 천주교회
3. 전국 신앙대회: 일시-10월 9일, 장소-춘천
4. 제 9 차 정기총회 해성 중·고등 학교: 일시-9일, 오전 10시, 장소-모교 대강당, 회비-3천원
5. 레지오 마리에 일일 피정: 10일, 10시, 대상-레지오 마리에 단원, 장소-가톨릭센터,
6. 해성 중·고교 견진자 피정: 10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가톨릭센터
7. 4지구 어린이 체육대회: 9일, 입장 8시 30분

(중앙)

전화 ①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인협
 사도 회장 김인협

1. 성경읽기: 갈라디아서 1~6장, 지혜서 7장
2. 사도회 삼일 위원회: 3일 공식미사 후
3. 성심부녀회: 8일
4. 병자방문: 8일
5. 공동체 목상회(M. B. W): 7~10일(3박 4일) 가톨릭센터
6. 축! 환영: 한기호(세자요한) 신부님 부임(10월 6일)
7. 공소미사: 3일 오후 3시
8. 성전 신축 헌금
 성심부녀회(5십만원), 서정래·정칭(각5만원), 진금자(2만원), 김성자·이창우·김귀일(각 15만원), 한올레·백이순(각 10만원), 박영래(1만원), 최장주(50만원) 신축헌금 계: 89,453,000원

□ 지난주 봉헌금: 733,180원 교무금: 852,900원

(노송동)

신부 ①0969
 주·사 ②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이홍재

1. 본당 신부님의 송별식: 오늘 저녁 8시, 4년 가까이 저희본당을 위해 수고하신 신부님이십니다. 다함께 오셔서 떠나시는 신부님을 위해 기도 합시다
2. 형제회·자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3. 금주의 성경읽기: 제 2 경전의 지혜서 전체
4. 예비자 교리안내: 일반-매주<일> 공식미사 후 남자반-매주<목> 저녁 미사 후, 학생반-매주<토> 오후 4시
5. 미사시간 변경: 4일부터 모든 저녁 미사는 오후 7시로 변경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 쟈모임: 매주<토> 오후5시, 쟈미사 매주<일>오전9시
7. 대학생 모임: 매주<금> 저녁 미사후

□ 지난주 봉헌금: 336,395원 교무금: 585,700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안철문
 사도 회장 양상열

1. 오늘은 본당 주보축일: 본당 발전을 위하여 기도
2. 이달은 로사리오 성월 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 합시다
3. 사도회 월례회의: 임원님들 꼭 참석 합시다
4. 반석회 월례회의: 다음주, 관심있는분 참석 합시다
5. 주님과 약속인 봉헌금: 완납 합시다
6.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11시-수녀님 지도
 금요일 저녁 7시-안신부님 지도
7. 애령주일 변경: 매월 3째주일로 변경 합니다

(복자)

전화 ⑤2328번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부녀회: 4일 어머니 미사 후
2. 자모회: 11일 어머니 미사 후
3. 첫철례 5: 7일 저녁 7시
4. 성우회: 다음주일 공식 미사 후
5. 금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이갑진 ② 이상인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황인구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사도회 임원님들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2. 반장님 모임: 다음주일 공식 미사 후
3. 꾸리아 모임: 다음주일 오후 2시, 회의실
4. 자모회 모임: 10월 5일<화> 오전 10시 성당 회의실 자모회원님들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5. 교무금 미납된분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본당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6.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차상열 ②김한기
 교무금: 298,000원

(숲정이)

전화 ①7366
 주·유 ②9567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김수겸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 후
2. 주일학교 후원회 월례회: 5일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3. 밀린 교무금을 연말안에 모두 결산 하신도록 협조 바랍니다
4. 가톨릭 신문 구독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정확한 주소 성명을 사무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전례담당: 해설-정주복, 독서-①송용호 ②김경주, 기도-강원모
6. 미사참례자 안내: 허옥순, 조금주, 박봉자, 고젤마 정복주

(전동)

전화
 신부 ①6208
 사부 ③3222
 수녀 ②8347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박병준
 사도 회장 이종두

1. 유아세례: 금일 8시30분 미사후
2. 사도회: 금일 공식 미사 후
3. 자모회: 다음주 공식 미사 후
4. 장우회: 다음주 공식 미사 후
5. 성 마리아 꾸리아 탄생: 단장-이영문·이귀남, 서기-신옥철, 회계-이길섭
6. 성가정회: 5일 오후 2시 30분
7. 아동 성가 경연대회: 최우수상, 도음주신 분께 감사
8.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종주, 독서-①최병래 ②이덕수
 공식미사: 해설-양현홍, 독서-①신일균 ②백종훈
 저녁미사: 해설-경양수, 독서-①김동수 ②이승호

□ 지난주 봉헌금: 544,600원

(파티마)

신부 ②0915
 수녀 ②4804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황희상

1. 오늘오후 저녁미사 후: 사도회 월례회 없습니다
2. 성모회 성지순례: 장소-새남터와 절두산, 신청-다음주일까지, 순례일정-10월 13일<수>
3. 10월은 로사리오의 성월: 묵주의 기도를 열심히 봉헌합시다
4. 신 수녀님 휴가: 이주간 예비자 교리는 쉽니다
5.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